Merck, 전자소재 포트폴리오 강화

독일 Merck가 전자소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Merck의 한국지사인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러지스는 10월12일부터 15일까지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IMID)에서 3D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최신기술을 소개했다.
Merck는 2008년부터 LED(Light Emitting Diode) 분야에서 형광체 소재 개발로 유명한 Litec을 인수함으로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으며 고효율 광원 시장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첨단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사업군을 크게 디스플레이, 태양광전지, LED/ OLED 광원용 재료로 분류하고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친환경 원료 및 공정을 사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박막트랜지스터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3D 디스플레이 시차 장벽에 사용된 패터닝 억제제의 RM 포뮬레이션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최근에는 RM을 사용한 필름 타입의 패터닝 억제제에 기반을 둔 3D 디스플레이 노트북이 상용화되고 있다.
또 급속도로 확대되는 LCD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40억원을 투자해 2010년 5월 평택 포승산업단지의 첨단기술센터를 개소했다.
Merck는 한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며, 화학소재의 핵심기술 개발에 전사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0/10/25>